

|유아, 초등 저학년|

# 〈화나게 해서 미안해〉

카일 루코프 지음 | 줄리 권 그림 | 신형건 옮김 | 보물창고 펴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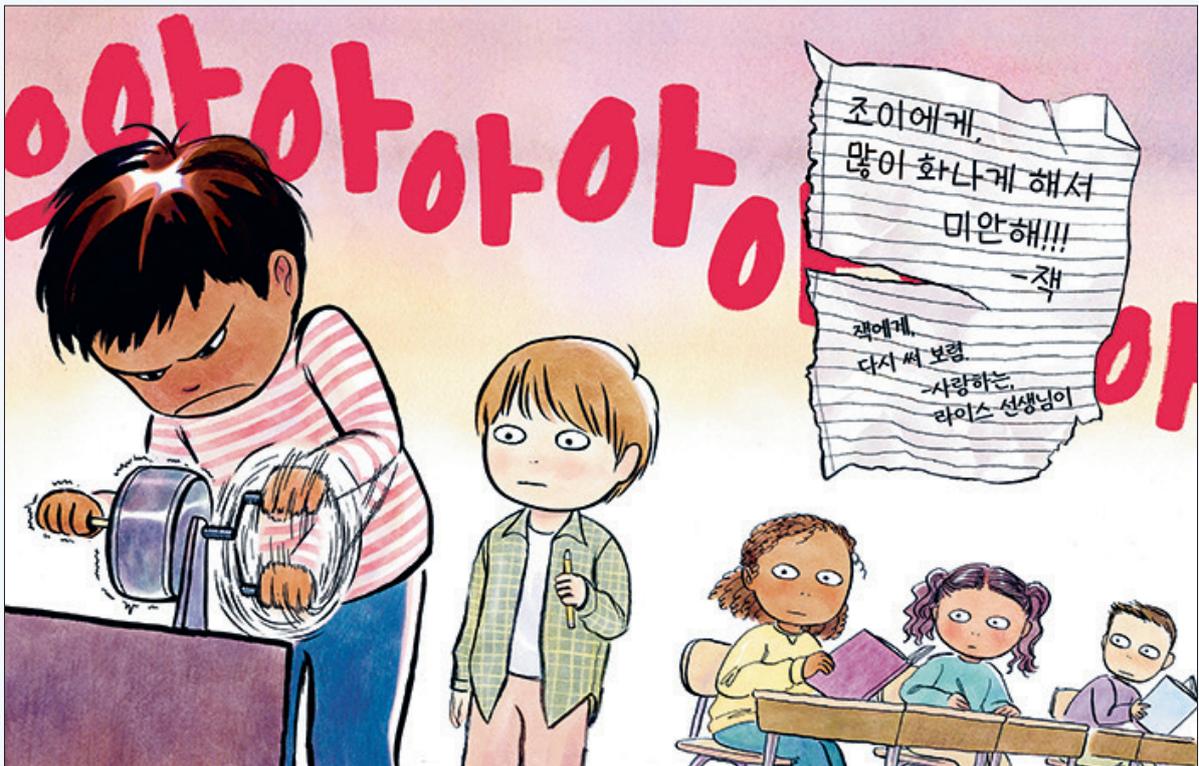
계속해서 사과의 편지를 쓰는 동안 책은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감춰 두었던 진심을 내비치기 시작한다. 그리고 마침내 친구의 마음도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. 그렇게 건넨 진심어린 사과는 아이의 소중한 우정을 지킬 수 있게 해 준다. 조금씩 달라지는 책의 사과 편지를 지켜보면서 어린이 독자는 자연스럽게 ‘올바른 사과’의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.

## 읽기 전 활동

1. 표지에 그려진 아이의 표정을 보고 아이의 감정은 무엇일지 이야기해 보아요.
2. 추측한 감정을 바탕으로, 표지 속 아이가 누군가를 '화가 난' 아이일지, '미안한' 아이일지 이야기해 보아요.
3. 뒤표지를 보고 두 아이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해 보아요.

## 읽기 중 활동

1. 책이 사과하려고 하는 '조이'가 누구인지 그림 속에서 찾아 보세요.
2. 책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책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나요?



3. 라이스 선생님은 사과를 할 때 세 가지를 말해야한다고 했어요.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?

### 읽은 후 활동

1.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있나요? 그때 나의 감정은 어땠나요?

2. 내 잘못이 아닌 것 같다고 느낄 때에도 사과를 하는 게 옳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 보아요.

3. 친구와 화해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말해 보아요.

